

가 각 간 갈 감 강 개 거 건 것 게 결 경 계 고 골 공 과 관 교 구
국 군 그 근 길 까 나 난 남 내 너 년 노 농 는 늘 니 다 단 당 대
데 도 동 되 된 두 드 들 디 따 때 또 라 란 램 래 러 레 려 력 련
로 료 르 른 를 림 리 린 마 만 말 며 면 명 모 무 문 물 미 민 밋
바 반 발 방 배 법 병 보 본 부 분 불 비 사 산 상 새 생 서 선 설
성 세 소 속 수 술 스 습 시 식 신 실 심 아 안 앗 알 야 양 어 업
없 었 에 여 역 연 였 영 예 오 와 요 용 우 운 울 원 위 유 육 으
은 을 음 의 이 인 일 임 있 자 작 장 재 저 적 전 절 점 정 제 조
종 주 중 증 지 직 질 집 찰 책 체 초 추 치 카 크 타 태 터 토 특
파 포 프 피 하 학 한 할 합 해 향 험 현 형 호 화 환 활 회 후 히

엑스트라볼드 산돌명조네오1 엑스트라볼드
볼드 산돌명조네오1 볼드
세미볼드 산돌명조네오1 세미볼드
미디엄 산돌명조네오1 미디엄
레귤러 산돌명조네오1 레귤러
라이트 산돌명조네오1 라이트
울트라라이트 산돌명조네오1 울트라라이트

“눈앞에 좋은 와인 한병과 두개의 잔이 있다.

하나는 호사스럽게 장식된 황금잔이고, 또 하나는 수수하고 투명한 유리잔이다. 아무거나 골라 와인을 따라보라. 어떤 잔을 고르느냐에 따라 와인에 대한 조예가 판가름 날 것이다. 와인을 모르는 자, 즉 와인의 색과 향과 맛에 관심이 없는 자라면, 수백 만 원을 호가하는 황금잔을 선택할지 모른다. 그러나 와인에 각별한 애정이 있는 자라면, 내용물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투명한 유리잔을 선택할 것이다.”

이 은유를 창안한 비어트리스 워드 (Beatrice Warde, 1900~1969)는 미국 출신의 타이포그래피 역사가 겸 비평가였다. 남편과 함께 1925년에 유럽으로 건너온 그녀는, 영국의 중요한 타이포그래피 저널 <플러론(The Fleuron)>에 폴 부종(Paul Beaujon)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얻은 평판에 힘입어 1927년에는 <모노타입 레코더(Monotype Recorder)> 지의 편집장에 임명되었다. 그녀의 명쾌하고 재치 있는 비평은 남성 중심적인 영국 타이포그래피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Medium
13 / 21pt

“눈앞에 좋은 와인 한병과 두개의 잔이 있다.

하나는 호사스럽게 장식된 황금잔이고, 또 하나는 수수하고 투명한 유리잔이다. 아무거나 골라 와인을 따라보라. 어떤 잔을 고르느냐에 따라 와인에 대한 조예가 판가름 날 것이다. 와인을 모르는 자, 즉 와인의 색과 향과 맛에 관심이 없는 자라면, 수백 만 원을 호가하는 황금잔을 선택할지 모른다. 그러나 와인에 각별한 애정이 있는 자라면, 내용물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투명한 유리잔을 선택할 것이다.”

이 은유를 창안한 비어트리스 워드 (Beatrice Warde, 1900~1969)는 미국 출신의 타이포그래피 역사가 겸 비평가였다. 남편과 함께 1925년에 유럽으로 건너온 그녀는, 영국의 중요한 타이포그래피 저널 <플러론(The Fleuron)>에 폴 부종(Paul Beaujon)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얻은 평판에 힘입어 1927년에는 <모노타입 레코더(Monotype Recorder)> 지의 편집장에 임명되었다. 그녀의 명쾌하고 재치 있는 비평은 남성 중심적인 영국 타이포그래피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Medium
8 / 13pt

“눈앞에 좋은 와인 한병과 두개의 잔이 있다.

하나는 호사스럽게 장식된 황금잔이고, 또 하나는 수수하고 투명한 유리잔이다. 아무거나 골라 와인을 따라보라. 어떤 잔을 고르느냐에 따라 와인에 대한 조예가 판가름 날 것이다. 와인을 모르는 자, 즉 와인의 색과 향과 맛에 관심이 없는 자라면, 수백 만 원을 호가하는 황금잔을 선택할지 모른다. 그러나 와인에 각별한 애정이 있는 자라면, 내용물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투명한 유리잔을 선택할 것이다.”

이 은유를 창안한 비어트리스 워드 (Beatrice Warde, 1900~1969)는 미국 출신의 타이포그래피 역사가 겸 비평가였다. 남편과 함께 1925년에 유럽으로 건너온 그녀는, 영국의 중요한 타이포그래피 저널 <플러론(The Fleuron)>에 폴 부종(Paul Beaujon)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Medium
21 / 34pt

비례와균형그리고글자들의

아름다운 꽃이 찬란하게 피고 열매가 많이 열려 있는 마을에서 살고자하면

숫아있는것에서

근대적 인쇄출판업은 그 태생부터 자본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고, 인쇄된 서적이란 무엇보다도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는 상품이었다. 중세 필사본은 은둔의 수도원과 귀족의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지만, 구텐베르크 이후 인쇄업은 베네치아, 리옹, 안트베르펜 등 상업과 금융, 무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번창해갔다. 학문의 중심인 파리, 종교서 출판이 활발한 로마,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정착했던 바젤에서도 인간 정신의 찬란한 유산들이 인쇄기의 빠그덕거리는 소음 속에서 육신을 갖추고는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단, 이 역사 속의 한 교훈은, 콘텐츠의 생산이 지속력을 갖추지 못한 상업만의 도시에서는 번덕스러운 헤르메스를 제대로 잡아두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 있는 도시인 라이프치히는 학문과 상업이 동시에 발달한 책의 도시다. 콘텐츠의 생산력이 비옥한 그 토양에서 근대적 인쇄출판업은 그 태생부터 자본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고, 인쇄된 서적이란 무엇보다도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는 상품이었다. 중세 필사본은

이국적인 분위기와 느리고 여유로운 문화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한글타이포그래피의발전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슬퍼할 일도 없고 기

Bold
77pt

Light
30pt

UltraLight
125pt

Regular
10 / 17pt

Medium
28pt

ExtraBold
77pt

Semibold
47pt

산돌은 대한
한글 폰트 디
회사로 출발
국내의 디

ExtraBold, 55 / 57pt

Regular, 21 / 31pt

산돌은 대한민국 한글 폰트
디자인 회사로 출발하여 국
디자인 발전에 견인차 역할
수행하며 한글 디자인 발전
주도해 나가는 대한민국 최
한글 폰트 디자인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디

Bold, 34 / 40pt

대한민국 한글 폰트
회사로 출발하여
디자인 발전에
역할을 수행하며

UltraLight, 144pt

진섭니다!

한글 디자인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대한민국 최대 한글 폰트 디자인 기업으로 성장하였습
디자인 트렌드의 변화를 꿰뚫는 안목으로 미래 디자인의 원동력이 될 한글 폰트를 개발하
타이포그래피 분야의 핵심 역량과 노하우, 그리고 전문 기술력과 장인 정신의 경험을 바탕
폰트 지식을 축적하여 대한민국 No. 1 폰트 전문 지식 회사로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
성장과 안정을 고루 갖춘 폰트 디자인 기업에서 나아가 “한글로 한국을 마케팅” 하는 글
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미래 기업 산돌은 지식의 바탕
디자인을 통해 한글 디자인 가치를 재창조하는 기업으로 도전과 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한글 디자인으로 세계 속에서 비상하는 산돌의 도전을 지켜봐 주시
바랍니다.

Light, 8 / 17pt

안목으로 미래 디자인의 원동력이 될 한글 폰트를 개발하였으며 타이포그래피 분야의 핵심
전문 기술력과 장인 정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폰트 지식을 축적하여 대한민국 No. 1 폰트
리매김 하였습니다. 이제 산돌은 성장과 안정을 고루 갖춘 폰트 디자인 기업에서 나아가 “한글로
로벌 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미래 기업 산돌은 지식의
해 한글 디자인 가치를 재창조하는 기업으로 도전과 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Medium, 13 / 21pt

Medium, 568pt

기존 신명조의 구조와 틀을 바탕으로 하여 돌기의 디자인을
기하학적이고 현대적인 곡선과 직선으로 디자인한 본문용 글자꼴이다.
직선과 마주치는 긴 곡선들은 마치 기와집 지붕을 타고 흐르는 곡선과 같다.

Medium, 13 / 26pt

UltraLight, 100pt

기존 신명조의 구조와 틀을 바탕으로 하여 돌기의 디자인을
기하학적이고 현대적인 곡선과 직선으로 디자인한 본문용 글자꼴이다.
직선과 마주치는 긴 곡선들은 마치 기와집 지붕을 타고 흐르는 곡선과 같다.

UltraLight, 13 / 26pt

SemiBold, 100pt

기존 신명조의 구조와 틀을 바탕으로 하여 돌기의 디자인을
기하학적이고 현대적인 곡선과 직선으로 디자인한 본문용 글자꼴이다.
직선과 마주치는 긴 곡선들은 마치 기와집 지붕을 타고 흐르는 곡선과 같다.

SemiBold, 13 / 26pt

Regular, 100pt

기존 신명조의 구조와 틀을 바탕으로 하여 돌기의 디자인을
기하학적이고 현대적인 곡선과 직선으로 디자인한 본문용 글자꼴이다.
직선과 마주치는 긴 곡선들은 마치 기와집 지붕을 타고 흐르는 곡선과 같다.

Regular, 13 / 26pt

ExtraBold, 100pt

기존 신명조의 구조와 틀을 바탕으로 하여 돌기의 디자인을
기하학적이고 현대적인 곡선과 직선으로 디자인한 본문용 글자꼴이다.
직선과 마주치는 긴 곡선들은 마치 기와집 지붕을 타고 흐르는 곡선과 같다.

ExtraBold, 13 / 26pt